

검정소

제2검정소, '06년도 최우수종돈장 시상식 개최

- 종합 최우수종돈장에 보광축산 수상

- 홍보부 -

양돈협회(회장 김동환) 제2검정소는 지난 4월 10일(화) 제200차 경매 행사에 맞춰 2006년도 선정된 종합 최우수종돈장 및 품종부문 최우수종돈장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양돈협회는 이날 종합 최우수종돈장에 보광축산(제주, 대표 김성찬)을 시상하고, 듀록 부문 최우수종돈장에 문경FINE(충남 당진, 대표 이경록), 우정종돈(전북 김제, 대표 심봉구), 랜드레이스 부문 최우수종돈장에 드림종돈(경기 양평, 김재선), 요크셔 부문 최우수종돈장에 다원종돈(경기 포천, 양상열), 우수 종돈장에 경기양돈(강원 화천, 대표 이운원)을 시상하고 모범종돈장에 진안무주축협(전북 익산, 조합장 배진수), 태광농장(충남 서산, 대표 이순범)을 시상했다.

이어진 공로패 시상에서는 황영상(하동군 의원), 김봉환(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 이정일(하동군 진교면 면장), 정의근(대한양돈협회 하동지부장)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제1검정소 신축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현대산업(대표 신영삼)이 100만원과 검정소 출품농장 각 250만원씩 총 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 김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한 종돈장들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한·미FTA 체결로 양돈산업이 존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양돈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고 각종 소모성 질환 등을 극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양돈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이경록 문경FINE 대표가 검정소 출품농장을 대표하여 제2검정소 신축기금으로 총 2,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 현대산업(대표 신영삼)이 제1검정소 신축기금으로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 종합 최우수종돈장에 선정된 보광축산 (대표 김성찬)



▲ 듀록 부문 최우수종돈장에 선정된 문경 FINE(대표 이경록)



▲ 듀록 부문 최우수종돈장에 선정된 우정 종돈(대표 심용구)



▲ 랜드레이스 부문 최우수종돈장에 선정된 드림종돈(대표 김재선)



▲ 모범종돈장에 선정된 진안무주축협(조합장 배진수)



▲ 모범종돈장에 선정된 태광농장(대표 이순범)



▲ 공로패를 수여받은 황영상 하동군 의원



▲ 공로패를 수여받은 김봉환 경북대 교수



▲ 공로패를 수여받은 이정일 진교면장



▲ 공로패를 수여받은 정의근 하동지부장



▲ 경매돈 구입자에 경품 증정 추첨 모습

합격두수, 합격률, 농장검정두수, 출품두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평가결과 보광축산이 종합 최우수종돈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본회는 수상기념으로 경매입찰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경매돈 구입자에 한해서 추

했다. 수상 종돈장들은 본회가 검정돈 출품종돈장들의 종돈개량과 출품의욕 고취를 위하여 2006년 1년동안 슈퍼돈 및 최우수돈 수상희수, 선발지수,

침을 통해 대형선풍기,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외 가전제품 등 경품 증정행사도 가졌다. **양돈**